

지역 소식통

고창군 부안면, 1마을1명소가꾸기

고창군 부안면에서 마을마다 1개소 이상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들고 가꾸는데 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부안면은 마을 진입로 화관 앞 등 빈 공터에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하고 담장 벽화 그리기 하천변에는 9, 10월에 만개하는 풍판지(돼지감자)를 심는 등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주촌마을에서는 지난 10일 마을주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마을 1명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꽃길 조성을 했다. 마을진입로에 방치된 공터를 활용해 철쭉나무, 단풍나무 등 100여주를 식재했다.

주촌마을 이재훈 이장은 "주민들이 함께 솔선수범해 마을가꾸기에 참여하여 매우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올해 1마을 1명소 가꾸기에 적극 참여해 마을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나서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3, 4월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 관내 부안동초 등 20곳에 진출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우리 학교 함께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범죄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학교안전담당관들은 초·중·고 각 학년별 높이에 맞춰 학교폭력 유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사례 위주 설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범죄(명예훼손·모욕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강현신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소방도로 2개 노선 준공

정읍시에 소방도로 2개 노선이 준공됐다. 시는 "조선동 양우내안아파트~소명교회 구간(이하 양우내안)과 상동정읍여고~석쇠 구간 소방도로(이하 정읍여고)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1억6500만원이 투입된 양우내안에는 연장 105m 폭 6m~8m로, 1억8000만원이 투입된 정읍여고는 연장 80m, 폭 6m로 개설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국민권익위 주관 '지자체 고충민원처리 실태 확인조사'

정읍시, 우수기관 선정

고충민원 예방·민원인 만족도 세부지표 기준 종합점수 81.6점

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조사(이하 고충민원 처리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 등 3개 분야와 민원인 만족도 등 15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합점수 81.6점을 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엄격한 서면심사와 현지 조사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시가 받은 종합점수는 지자체 전체 평균 72.4점보다 9.2점이 높은 것이다.

또 민원인 만족도에서도 기초자치시 단위 평균인 58.4점 보다 5점이 높은 58.4점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고충민원 276건과 전자민원 2566건 모두 2842건이 접수됐다.

이중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완료처리로 인정되는 전자민원을 제외한 고충민원의 해결을 보면 '수용' 213



건 불수용 17건 내부종결 1건, 추진 중 20건 기타 25건이다.

또 처리기간 내 민원처리 준수율도 고충민원은 100%, 전자민원은 99.6%로 평균 99.7%로 높게 나타났다.

김생기 시장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해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라

고 평가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부작위로 시민들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을 해결, 단 한명의 시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민원처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국악상설공연 '호응'

'동리와 놀다' 공연 11월까지 총 14차례 진행

전문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동리(洞理)와 놀다' 공연이 시작됐다.

첫 공연은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국악상설공연-동리와 놀다'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상설공연은 전문문화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형유산 종목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과 관

소리박물관, 신재효 고택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판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동리와 놀다' 공연은 지난해에도 뜨거운 호응을 보여 올해에도 11월까지 총 14차례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고창읍성 관광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평소와 연계해 선운산도립공원,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운곡습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등과 함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 찾는 고창군 실

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8일 첫 공연은 고창의 젊은 소리꾼들로 구성된 '국악예술단 고창'이 '고창이리랑', '쑥대머리', '사랑가' 등 전통국악과 '인연', '방황' 등 퓨전국악공연을 함께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7시에는 고창읍성 야외특설무대에서 테마공연 '동리정사, 봄꽃 물들다'가 공연되며, 오는 29일 오후 2시에는 '동리와 놀다' 두 번째 공연이 다음 달 13일에는 '동리와 놀다' 세 번째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상설공연은 고창에 소재한 단체들인 '국악예술단 고창', '사한국관소리보존회 고창지부', '사)동리문화사협회', '고창문화원'이 참여해 회차별로 공연을 진행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정읍시는 11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첫 위원회를 열어 2016년

도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마련했다"며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 개선과 함께 감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변산반도 수성당 유채꽃 '절정'

시계절 관광지로 알려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된 수성당 유채꽃은 천혜의 해안풍경을 자랑하는 적벽강과 어우러져 최고의 장관을 연출하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 관광부인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부안군 변산면(면장 유인갑)은 변산반도의 명소인 수성당 유채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해 오는 15일경이면 그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가득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성당 유채꽃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5회 부안요복마실축제 기간까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당 주변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유채밭(11a)은 변산반도 해변을 따라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대규모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도도 부안 수성당이 유일하다고 한다.

변산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하면서 적벽강에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수성 당에 오르면 유채꽃 숲을 만날 수 있어 최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부안 마실길을 찾은 도보여행객 역시 봄 햇살 아래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을 보면서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듯 황홀경에 빠지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변산면은 가족단위 나들이객, 단체관광객, 마실 길 여행객 등을 위해 변산반도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으실 수 있도록 유채밭 탐방로 개설과 함께 포토존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한편 부안 수성 당은 지난 1974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됐으며 바다의 풍어와 인연을 기원 하려고 서해를 다스리는 개안(수성)함미와 그녀의 딸 여덟 자매를 모신 곳으로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풍년을 피하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며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 적극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복지시설의 오래된 조명을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을 적극 시행하면서 에너지복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4년에 347가구, 2015년에 1000여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지난해에는 경로당 50개소 등 그동안 총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LED무상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국비 1억2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경로당 207개소와 복지시설 7개소에 LED조명을 무상교체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LED 조명의 수명은 2만~5만 시간으로 일반 형광등이나 삼파장 형광등의 수명보다 길고, 광전환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 경로당 복지시설에 밝고 환한 공간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LED 조명은 백열등 대비 80% 전기요금 절감효과와 더욱 밝고 경제한 휴식공간으로의 개선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전력효율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취약계층이 보다 밝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gift set options.